

투데이 칼럼

개성공단 가동 문제

금 강산의 우리 자산인 해금강 호텔이 완전히 해체됐고 금강산 호텔 등 북측 자산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4월 말 촬영한 개성공단 위성사진에는 건물 앞과 공터 등 곳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눈에 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10여 개의 공장을 불법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 기업 자산의 무단 사용은 남북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이다.

통일부는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 기업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은 이젠부터 포착됐다. 앞서 미국 위성업체가 개성공단을 열적외선 위성으로 촬영했는데, 섬유와 전자, 전기기술 등의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공단의 통근버스가 평양과 개성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촬영 매체가 버젓이 공개하기도 했다.



정복규 논설위원

성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촬영 매체가 버젓이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담은 해금강호텔의 하층 지하대까지 완전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짝 들어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15년 전 우리 선수들이 북한 땅에서 첫 대회를 치렀던 골프장 숙소등을 비롯해 금강산 온정각, 고성항 횡집 등 우리 기업의 건물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과도 무역이나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해야 된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과도 무역이나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 교단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북 모두 대화는 끊고 군사력 증강에 나선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디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한의 여러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일종의 신의의 원칙에 기반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가져오려면 대형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이는 안보리 제재에 저촉이 된다.

남북 관계 측면에서 그렇고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가 새로 합의한 NCG, 즉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북한은 고체연료 ICBM, 화상-18형을 처음 발사했다.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했지만, 2단과 3단은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다.

이 같은 혼선을 피하고 북핵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은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 공유약정, TSA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에 이어지면서 현재의 신병정급 대결 구도를 강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도 한미일의 움직임이 아시아 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출현으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나섰다.

사설 새만금 특화단지와의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올 들어 1조 원대 한·중 합작투자가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적만 약 5조 2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4조 원, 거의 대부분의 성과가 지난해부터 나온 것들이다.

현재는 공장 입지에서 사업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들을 한데 모으는 '특화단지' 부지를 물색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을 보유한 전라북도도 도전장을 냈다.

수요가 큰 시장이어서 기업들이 다급히 큰 규모의 공장 부지를 원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던 때, 일부 매스컴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1%, 부정 평가는 55.5%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할 여건도 마련돼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다.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로 지역균형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정의 당위성을 다각도로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과 울산광역시 등 주요 산업도시들이 유치 의향을 보이며 전국 5개 지자체가 특화단지 경쟁전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안배 논리가 작용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관심 지자체의 특화단지 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심사에 돌입한다.

외교안보 성과와 과제

대통령은 9개국을 방문했고, 34번의 양자회담과 12번의 다자회의에 참석했다.

12년 만에 서물외교를 복원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불꽃도 뿜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실행력을 대폭 키우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한미, 한일 관계 강화에 힘을 쏟아 부었고, 중국, 러시아와는 소원해졌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가로 못 박았다.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제 안보와 관련돼 있는 배터리 문제나 반도체 문제 등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한 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 간 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4년 넘게 단절됐고, 북한은 통신연락선마저 모두 끊었다.

남은 임기 4년 역시 지난 1년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1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간사슬 형성한 G7 정상회의 반대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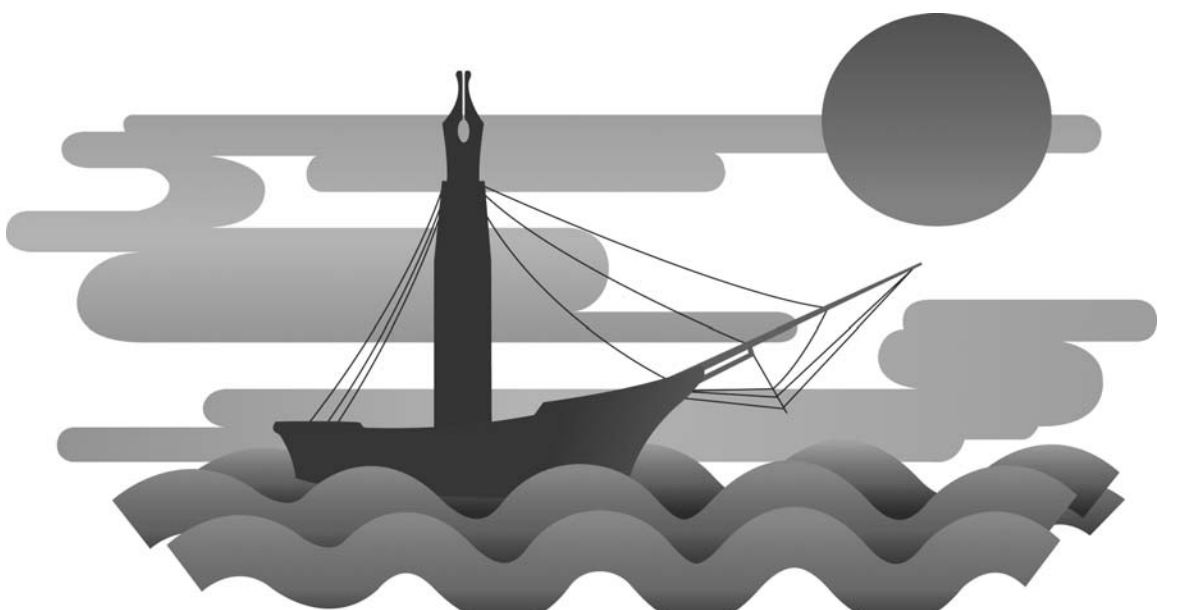
지난 19일 일본 서부 히로시마의 한 거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인간사슬을 형성한 채 행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깃발 흔드는 반이스라엘 시위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구시가지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기념 행진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